

세계 경제 동향

○ 호르무즈 통항 위축으로 탱커 운임 급등 ■ '26-8-19 Lloyd's List Intelligence

-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8월 10~16일 73건으로 전주(91건) 대비 감소. 이 중 비이란계 선박은 43건으로, 4월부터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의 주평균(37건)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침
- 통항 위축으로 초대형 원유운반선(VLCC) 운임이 급등해 중동걸프~중국 항로(TD3C) 수익이 일 52만 달러를 상회. 국제유가도 8월 20일 브렌트유 기준 93.78달러로 상승
- ❖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·해상 물류비 상승이 농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

○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19년 만의 최고 수준 ■ '26-8-20 Reuters

-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8월 18일 5.34%로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 수준 기록
- 중동 전쟁 격화 우려와 미국 재정 악화 우려가 겹치며 장기물 매도가 확대. 미국의 총 국가채무는 8월 19일 기준 40조 달러를 상회
- 미 재무부는 8월 19일 장기 국채 환매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. 발표 후 30년물은 5.18%, 10년물은 4.66%로 하락
- 한편, 원/달러 환율은 8월 21일 기준 1,386.5원으로 7월 이후 하락 지속
- ❖ 원화 강세는 사료·비료 등 수입 농자재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거나, 미 장기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재연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○ KDI, 2026년 성장률 3.2%로 상향 ■ '26-8-19 한국개발연구원

- 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「KDI 경제전망 수정」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을 3.2%로 5월 전망(2.5%)보다 0.7%p 상향. 2027년도 2.2%로 0.5%p 상향하며,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
- 설비투자(7.9%, +4.6%p)와 총수출(8.7%, +4.1%p)이 큰 폭 상향된 반면 민간소비는 2.3%(+0.1%p), 건설투자는 0.1%(0.0%p)에 그침
-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은 11만 명으로 6만 명 하향
- ❖ 반도체 편중 성장으로 실질임금·고용 개선이 지연되는 만큼 농식품 소비 여력 위축 여부 점검 필요

○ 7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.4% 하락, 전년동월대비 7.7% 상승 ■ '26-8-21 한국은행

-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석탄및석유제품(-5.1%)·화학제품(-1.3%) 등 공산품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0.4% 하락. 다만 전년동월대비 7.7% 상승해 높은 수준 지속
- 농림수산품은 농산물(+2.4%)·수산물(+2.2%)이 올라 전월대비 1.5% 상승. 신선식품도 3.5% 상승하였으며,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전월대비 115.8%, 쇠고기가 3.2%(전년동월대비 20.2%) 상승
- 양우용 배합사료가 전년동월대비 5.1%(6월 전년동월대비 4.8%) 오르는 등 사료비 부담 지속
- ❖ 유가 하락으로 전체 생산자물가가 내린 가운데 농림수산물과 사료 가격은 오른 만큼, 하절기 농축산물 수급 불안과 사료비 부담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미국, 8월 국제 곡물 수급 전망 발표 Ⅰ '26-8-12 USDA

- '26년 8월 12일 미국 농무부(USDA)는 2026/27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발표함.
 - (생산량) 전년 대비 2.2% 감소한 29억 5천만 톤으로 전망됨. 품목별로는 소맥(-2.9%), 잡곡(-2.2%), 쌀(-1.5%)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듦 전망임.
 - (총공급량 = 생산량 + 전년 기말재고량) 전년 대비 0.9% 감소한 37억 6천만 톤으로 전망됨.
 - (소비량)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9억 9천만 톤으로 전망되나, 생산량을 약 1%(3,639만 톤) 초과할 전망이다.
 - (교역량, 수출량 기준) 전년 대비 5.4% 감소한 5억 2,782만 톤으로 전망됨.
 - (기말재고량) 전년 대비 4.5% 감소한 7억 7천만 톤으로 전망됨.
 - (기말재고율 = 기말재고량/소비량) 전년 대비 1.2%포인트 하락한 25.9%로 전망됨.
- 7월 전망과 비교해 생산량·소비량·기말재고량 전망은 큰 변동이 없으나, 교역량 전망은 흑해 일대 분쟁 격화에 따른 러시아·우크라이나 소맥 수출이 줄면서 7월 전망 대비 42만 톤 소폭 하향 조정됨.
- ❖ 국제 곡물의 생산과 교역 여건이 동시에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사료·식품 원료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 요망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식품부, '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발표 Ⅰ '26-8-20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8월 20일 농식품부는 주요 과일(사과, 배, 단감) 수급 동향과 대응 계획을 발표함.
- (폭염·가뭄 피해신고 면적) 경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
 - (단감) 전체 재배면적의 17.2%, 이 중 경남 지역이 99.7% 차지
 - (배) 전체 재배면적의 0.6%, 전량(100%)이 경남 지역
 - (사과) 전체 재배면적의 0.2%, 이 중 경남 지역이 82.8% 차지
 - '24년 기준 전국 재배면적 중 경남 지역 비중: 단감 67.6%, 사과 11.1%, 배 5.0%
- (생산량 전망) 사과·배는 전년 대비 증가 전망, 단감은 최근 폭염·가뭄 피해로 전년 대비 일부 감소 가능
 - 8월 초 기준 예상 생산량(전년대비): 사과 487.1천톤(+8.7%), 배 200.0천톤(+1.3%), 단감 96.3천톤(+7.0%)
 - 사과·배는 폭염·가뭄 피해율이 5% 미만으로 수급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
 - 단감은 햇별데임 피해가 발생했으나, 8월 중순 남부지방 강우로 피해가 경미한 과실의 생육이 회복 중
- (과일 가격 동향) 출하량 확대로 전년 대비 안정적 가격수준 유지
 - 조생종 사과(전년대비): 출하량(+20.5%), 도매가격(-18.1%), 소매가격(-28.6%)
 - 조생종 배(전년대비): 출하량(+48.1%), 도매가격(+9.0%), 소매가격(-3.2%)
- (정부 대응) 생산 및 수급안정 대책 지속 추진
 - 과수 주산지 농협을 통해 약제·영양제 최대 50% 할인 공급
 - 올 추석에 정부 보유 지정출하 물량의 분산 출하, 명절 선물세트 할인 공급 추진
- ❖ 차례상 간소화·수입과일 선호 등 과일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공급량과 함께 소비자 구매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